

한일교류의 역사 (근·현대편)

- 머리말
- 아시아로 다가오는 세계의 열강
- 강화도 사건
- 조약 성립후
- 임오군란
- 갑신정변
- 동학농민운동(일본에서는 갑오농민전쟁이라고 불립니다)
- 청일전쟁
- 왕비암살과 단발령
- 러일전쟁
- 일본에 의한 식민지배와 그에 대한 저항
- 황민화 정책

한일교류의 역사

(근·현대편)

~머리말~

조선통신사에 의하여 200여년에 걸쳐 우호관계를 유지한 한국과 일본이었습니다만, 19세기에 들어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소위 열강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접근해 오자, 양국의 대응은 달라졌습니다.

일본은 쇄국을 유지했습니다만, 1853년에 미국의 페리가 군함 4척과 함께 우라가(浦賀)에 내항하여 개국을 요구하자 쇄국에 종지부를 찍고 곧 무역을 시작합니다. 이미 그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에도막부는, 개국이후 더더욱 중요합니다. 한편, 사쓰마(薩摩)[가고시마현(鹿児島県)]이나 조오슈우(長州)[야마구치현(山口県)] 등, 서일본의 유능한 하급무사는 일본의 개혁을 목표로 천황이나 귀족과 결탁하여 1867년, 에도막부를 봉괴로 몰았습니다. 메이지(明治)신정부는 폐번치현(廢藩置縣)(1871년, 다이묘(大名)이라는 영주가 지배하는 번을 그만 두고, 새로운 수도가 된 도쿄에서 정부의 관료를 현령(県令)[현지사]로서 파견하여, 이 사람이 다스리는 현을 설치하였다)이나 청병령(1873년) 등, 서둘러 개혁을 실시해, 유럽이나 미국의 문명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1889년, 천황제를 토대로 군주권을 폭넓게 규정한 대일본제국헌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개혁과 근대화 뒤에서,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 존엄을 아무렇게나 하는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조선에서는 1863년에 제26대 국왕·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대원군은 국정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유럽이나 미국의 세력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 쇄국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의 근대화는 일본보다 늦어지게 됩니다. 대원군은 1873년에 왕비인 민비로 정권을 빼앗깁니다. 이때부터 일본 국내에서 「정한론」이 생겨, 조선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한일교류의 역사

(근·현대편)

~아시아로 다가오는 세계의 열강~

서울 시내를 통과하는 한강을 따라가다 보면 강화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래된 싸움의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강화도에는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서 만들어진 포대가 있으며, 외적을 경계해서 병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개국과 식민지화가 활발해진 것은 이 때쯤이며, 1854년에는 그때까지 계속 쇄국해온 일본도 개국하게 됩니다.

열강은 조선도 개국시키려고 해서 조선연안에 올 때마다 통상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력없이 통상을 요구했습니다만, 점차 무력에 의한 침입으로 변하고, 조선에 개국을 강요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메이지(明治) 6년 정변¹⁾이 일어나서 정한론을 둘러싸고 정부가 분열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무력에 의한 최초의 조선침입은 프랑스 함대였습니다. 이것은 1866년 대원군²⁾이 실행한 천주교도 박해가 계기가 된 것이며, 중국으로부터 조선에 잠입한 프랑스 선교사가 살해된 것을 구실로 프랑스가 보복하려고 한 것으로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1871년에는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 로저스가 이끄는 함대가 강화도의 동쪽 연안에 와서 강화도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신미양요」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해서 열강들은 조선에 개국을 요구하기 위하여 잇달아 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 메이지 6년 정변 :

「정한론 정변」이라고도 불리며, 메이지 6년(1673) 10월에 사이고오 다카모리(西郷隆盛),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등 5명의 참의가 일제히 사직하여, 메이지 정부 수뇌가 둘로 분열된 근대일본정치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2. 대원군 :

대원군이란 “지위”의 호칭이다. 조선조에서 국왕에 직계의 왕위계승자가 없을 경우, 왕족내의 다른 계통에서 다음 왕을 뽑아 그의 실무를 존칭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를 가리킨다. 고종은 즉위했을 때 12살이었으며,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섭정으로서 실권을 잡고 있었다.

한일교류의 역사

(근·현대편)

~강화도 사건~

열강이 조선의 개국을 요구한 것과 같이 일본도 조선의 개국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계기가 없을까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1875년 9월, 야마구치번(山口藩)으로부터 신정부가 이어받은 군함인 「운양호(雲揚号)」(배수량 245톤)와 「제이정묘호(第二丁卯号)」(125톤)가 허락도 없이 부산항에 입항하여 발포훈련 등을 실시하여 조선의 관민을 위협했습니다. 그후, 강화도로 접근해서 섬을 지키기 위한 군 시설로 보트로 올랐습니다. 국교가 없는 이국선이 연안에 접근한다는 것은 분명한 도발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정부가 승인한 계획적인 것이었습니다. 실은 그 전부터 이미 몇 번 조선연안을 조사하여 공격의 기회를 엿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조선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기다렸다는 듯이 「운양호」의 함장이었던 해군 소좌 이노우에 요시카(井上良馨)는 22명의 장병에게 강화도에로의 상륙을 명합니다. 그리고 성내의 건물·민가를 불태웠습니다. 이때 35명이 죽었습니다만, 그 시체는 유기하고, 조선사람들의 병기와 악기 등까지 빼앗았습니다. 이때 일본측은 부상자가 몇명 생겨, 그 중 1명이 죽었습니다. 그 해 10월, 이번에는 「춘일호(春日号)」(배수량 1269톤)라는 목조대형 쾌속함이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파견의 목적은 물론 조선에 대한 군사적 위압입니다. 일본군은 조선의 한강 하구에 있는 강화도 가까이에서 조선으로부터 포탄공격을 받아, 이것을 구실로 개국을 재촉했습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인 일본은 피해자로 가장하여 「사건」을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일본측은 이 사건을 구실로 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때 특파대사이었던 육군중장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는, 통상조약 체결 협상을 위하여 1876년 1월 6일, 전권대표로서 조선에 파견되었습니다. 산조(三條) 태정대신이 구로다에게 부여한 일은 강화도사건의 「배상」과 교환조건으로 조선과 수호·통상조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조선정부의 대표로서 일본측과 접촉한 것은 신헌(申櫛)이었습니다. 구로다 대사는 우선 수송선 「현무환(玄武丸)호」에 총원 800명의 대접단과 함께 승선하여 시나가와(品川)만을 출항하여 조선으로 출발했습니다. 조선반도의 서해안에서 경기만으로 침입한 함대는, 강화도, 인천 등의 수역을 상세하게 측량하였는데, 조선의 관민은 이것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식음료를 구한 상륙지에서는, 주민이 도와서 모닥불을 지피거나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일본측의 태도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조선과 일본의 조약회의는 시작됩니다. 원안 전문에는 「대일본국 황제폐하」에 대해 「조선국왕 전하」라는 존호³⁾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대」자와 존칭의

※3. 존호 :

존경해서 부르는 칭호. 특히 천황·태상천황·황후·황태후 등의 칭호를 가리킨다.

삭제가 요구되어, 협의한 결과 종칭을 빼고 양국에 「대」자를 붙이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조약 중의 「조선국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한을 보유한다(제1항)」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동의하였고, 또 「일본인 집주지역 설치(제4항)」, 「조난선 구조(제6항)」, 「영해의 자유측량(제7항)」, 「개항장의 관리관 주재(제8항)」, 「자유 무역의 연척(제9항)」 등은 거의 문제없이 승인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일본 사절의 한성 상주(제2항)」, 「부산 이외의 두 개의 개항장소의 선정(제5항)」, 「최혜국대우(제12항)」이었습니다. 그 중 개항은 구체적인 지명을 정하지는 않고, 그냥 경기·충청·전라·경상·함경의 중의 두 항을 개항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혜국대우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장래 타국과 조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했기 때문에 삭제되었습니다.

한일교류의 역사
(근·현대편)
~조약 성립후~

이렇게 해서 체결된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이라고도 합니다)」는 어느쪽으로 보더라도 불평등조약이었습니다만, 일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이외의 두 항의 개항은 연기되어 있었고, 외교 대표의 수도 한성에의 상주도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변해 불평등조약이 실행된 것은 1880년대에 들어선 후이었습니다.

1881년에는 「신사유람단」이라고 불리는 시찰단이 조선으로부터 일본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명치유신 이후의 일본의 개화정책의 실정조사가 목적이었으며, 그들이 일본에 체재한 동안에 정치·경제·문화 전반에 걸쳐서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후 조선은 1882년 5월 22일에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에는 영사재판권의 용인, 인천 이외의 개항장에서의 미국 수출, 최혜국대우 등, 조선에 있어서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관세에 대해서는 조선의 자주권을 원칙으로 보고, 수입일용품 10%, 수입기호품 30%, 수출상품 5%로 되었습니다. 그후 일본은 독일, 이태리, 러시아 등의 나라와 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한일교류의 역사

(근·현대편)

~임오군란~

1881년에는 일본의 군인을 군사고문으로 초대해 별기군이라는 군대를 훈련시켰었는데, 이 별기군에 비하면 구 군대의 급료는 대단히 적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쌀로 지급되던 급료가 늦어지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병사들의 생활은 곤란한 것이었습니다. 13개월간 급료의 지불이 없던 후, 1882년 6월에 드디어 병사들에게 봉급미가 지불되었는데, 그 때 받은 쌀에 모래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급을 담당할 창고계가 모래로 속여서 그 차액을 착복한 것입니다. 병사들은 그때까지의 불만을 폭발시켜, 창고계를 때고 청사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인물이 붙잡혀, 사형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병사들이 드디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1882년 7월 23일의 일이며, 이 해가 임오년이기 때문에, 이 폭동을 임오군란이라고 합니다.

국왕과 왕비(일본에서는 민비라고도 불립니다) 일족은 개국정책을 취하여, 국내 개혁을 시작하고 있었지만, 1873년부터 실각해 있던 대원군은 병사들의 폭동을 이용했습니다. 민씨정권을 무너트리려고 했었기 때문에, 일본공사관을 습격하도록 시키고, 민씨 친족과 정부요인을 살해하고, 저택도 부숴 버렸습니다. 일본공사관이 일반민중을 포함한 수천의 군중에 둘러싸인 것은 그날의 저녁경이었습니다. 심한 습격 때문에 더이상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한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공사 등 28명은, 공사관을 버리고 피난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국왕 고종은 할 수 없이 대원군을 맞이하여 정권을 넘겨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비(민비)는 왕국으로부터 도망쳐 마을에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조선정부와 교섭한 하나부사 공사는, 일본정부로부터 사죄와 손해배상을 받도록 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군은 수백명의 군대를 파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측은 청국의 간섭을 두려워 하여 서둘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일본측은 조선과 일본의 문제는 조약에 근거하여 해결하려고 해서 청국의 개입을 막았었는데, 청국은 “조선은 청국의 속국이기 때문에 청국이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일본측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원군 납치사건이 일어납니다. 개국정책을 방해하는 대원군을 배제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일본도 청국도 같았습니다. 실행계획은 상해에 있던 마건충 등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청국황제가 책봉한 조선국왕을 물러나게 하고 정권을 빼앗는 것은 국왕을 깔보고 황제를 경시하는 것으로, 그 죄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 납치의 이유였습니다. 그 후 민씨정권은 부활하고, 왕비는 재차 왕국에 되돌아 갑니다.

한일교류의 역사

(근·현대편)

~갑신정변~

왕비를 중심으로 하는 청의 종주권을 시인하는 그룹이 조선의 정권을 쥐고 있는 것에 비해, 김옥균·박영효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에 의존하여 개화의 기회를 노렸던 그룹이 일본 공사관의 군대지원을 받아 쿠데타를 일으켜 왕궁을 점령한 사건을 갑신정변이라고 합니다. 1884년 청불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청국이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던 군대의 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만, 청국은 아직 15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켜 싸우려고 한 수는 불과 150명 정도로 쿠데타 계획은 실로 보잘것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청국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바라며 이 쿠데타에 참가했고, 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 등이 관여했습니다. 쿠데타가 결행된 날은 12월 4일로, 이날은 우정국의 개국축하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방화를 해 달려온 고관들을 살해하는 계획을 세워, 방화는 실패했으나 쿠데타는 실행되었습니다.

이 쿠데타에 대하여 청국군은 출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선국왕이 일본공사의 보호를 명하였던 점과, 청일충돌에 의한 혼란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러나 청국군은 창덕궁에 있던 조선국왕을 공격했습니다. 12월 6일, 전투는 오후 세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넓은 창덕궁을 지키기에는 인원이 너무 적었던 일본군은 궁방 왕궁의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국왕과 왕비는 도망치려고 우왕좌왕했습니다만, 다케조에 공사는 일본군을 후퇴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케조에 공사는 윗문으로 도망쳤습니다만, 그 사이에 시중은 아수라장이 되어 거류일본인 29명이 살해되었습니다. 이것은 거류민을 보호하지 않았던 다케조에 공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공사관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다케조에 공사는, 7일 오후, 공사관에 방화를 한 후, 인천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천세환호(千歲丸号)」에 승선하여 일본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때 김옥균 등의 동행을 다케조에 공사는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김옥균과 자신의 관계가 알려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갑신정변이라는 것은 일본정부가 조선을 간섭하여 정권 교체를 꾀한 응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다케조에 공사가 김옥균 등과 관계한 사실은 없고, 보호를 요구한 국왕의 요청에 의하여 왕궁에 진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과 조선간의 사후처리는 진상규명과 책임문제를 묻지 않는 것으로 간단하게 끝났습니다만, 큰 문제는 오히려 청국과 일본간에 있었습니다. 1885년 3월 21일, 이토 히로부미 등은 북경에 들어갔습니다. 4월 3일부터 이홍장이 있던 천진에서 교섭이 시작되어, 한성 주재의 청일양군의 공동 철수 등에 관하여 협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토와 이홍장의 교섭은 4월 15일까지 6회에 걸쳐 행해졌습니다.

그 결과 청일양국은 조선에로의 파병에 있어 서로 사전통고를 하는 것을 인정하

고, 「천진조약」에도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한일교류의 역사
(근·현대편)
~동학농민운동~
(일본에서는 갑오농민전쟁 이라고 불립니다)

갑신정변 후, 조선에는 청과 일본의 상인들이 진출하게 되어, 조선의 농촌 사회는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상인은 영국산 면제품이나 일본제 일용품 을 가지고 와서 비싸게 팔고, 반대로 조선에서는 쌀이나 콩 등을 싸게 사서 돌아갔 습니다. 그러는 동안 조선에서는 쌀이 부족하기 시작했고, 농민의 생활은 점점 곤란 하데 되어갔습니다. 조선의 지방관료가 곡물의 유출을 금지하는 「방곡령」을 내렸 는데, 일본정부는 트집을 잡아 조선정부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외세의 침략과 내부에 만연하는 정치의 부패로 농민들의 불만은 높아만 갔습니 다. 전통사회와 개혁사상을 포함한 「동학」은 이때 농촌사회로 급속히 퍼져 나가 고 있었습니다. 당시 관리들에 의한 엄한 징세 등으로 고생하던 농민들 사이에 많은 신자를 획득했습니다. 「동학」이란 민간신앙을 기본으로 하여 유교·불교·도 교 등을 섞은 독자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서학이라고 하는 데 비해, 동방의 조선의 학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동학의 농민봉기는 1894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 지방관료의 횡포는 대단한 것으로 민중은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상대가 무력으로 탄압하려고 했기 때문에 민중도 무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력으로 탄압하면 할수 록 상황은 비극적으로 되어 갔습니다. 동학 농민의 봉기는 고부라고 하는 전라도의 곡창지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부에 부임해 온 군수가 수리세를 받지 않는다는 약 속으로 농민에게 저수지를 만들게 했는데, 완성하자 농민과의 약속을 깨고 수리세 를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조상묘의 비석까지 만들고 비용을 농민들에게 강제로 부 과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모순을 호소했습니다. 몇 번이나 호소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생각다 못한 농민들은 1894년 고부군청을 습격했습니다. 동학농민의 봉기는 2 월에 일어났습니다만, 6월에 일본군과 청군이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학군 은 물러나려고 했는데도 일본군은 그곳에 눌러앉아서 좀처럼 철수하려 하지 않았으 므로, 10월에 농민들은 재차 봉기했습니다.

한일교류의 역사

(근·현대편)

~청일전쟁~

1894년에서 1895년에 걸쳐,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둘러싸고 싸운 청국과 일본의 전쟁을 말합니다. 이 전쟁은 명치유신 후 일본이 처음으로 경험한 본격적인 외국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대만 등을 영토로 하여 아시아 침략의 첫걸음을 내디디게 됩니다.

일본군은 갑오농민전쟁 후에도 조선에서 물러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궁인 경복궁까지도 점령합니다. 외국의 군대가 왕궁에 침입하여 국왕을 붙잡는다는 일이 어떤 일인가 상상해 보십시오. 일본군은 그후 8월 1일, 청국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청일전쟁에 의한 조선침략을 참다 못한 농민군은 재차 봉기하게 된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습디다만,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 해 10월, 전주·광주의 농민군은 전라도 삼례에 모여 정부군·일본군과 대결했습니다. 50회나 되는 공방전이 펼쳐졌습디다만, 병기도 적은 농민군은 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정부군과 일본군은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고, 집을 불태웠습니다. 농민들의 봉기는 이렇게 진압되었습디다만, 조선 사람들의 침략자와 부패한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모습과 정신은 그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본 청일전쟁은 청국에 승산이 있다는 것이었습디다만, 한반도를 북상한 일본 육군은 10월에 청국 영내로 진출하고, 11월에는 여순·대련, 요동반도를 점령해서 결과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1895년 3월에는 시모노세키(下関)에서 청일강화조약(시모노세키 조약)이 조인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요동반도·대만 등을 할양할 것, 배상금 이억량(일본돈으로 약 삼억 일천만엔)을 지불할 것, 사시·중경·소주 등을 개항할 것,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일전쟁은 끝났습디다만, 그렇게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강화조약 조인후, 만주에 진출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러시아는 프랑스와 독일과 함께 일본에게 요동반도를 청국에 되돌려 주도록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삼국간섭이며, 일본은 삼국을 상대로 싸울 만큼의 국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청국로부터 배상금 삼천만량을 추가로 받는 것과 교환으로 요동반도를 반환한 것입니다. 일본국민은 요동반도의 반환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와신상담(臥薪嘗胆)」을 표어로, 러시아에 대한 반감은 높아져 갔습니다. 와신상담이란 장작 위에서 자거나, 쓴 간을 맛보는 생각을 하여 괴롭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복돋는 것을 말합니다. 청일전쟁 후, 일본정부는 청국으로부터 얻은 거액의 배상금으로 군비를 강화하고 제철소를 만들고, 철도를 부설하고 통신사업을 벌였습니다.

한일교류의 역사

(근·현대편)

~러일전쟁~

왕비가 살해된 후, 조선 국왕은 러시아 공사관에 보호되어 조선에 있어서 러시아의 세력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 즈음 청국에서는 의화단이라는 종교결사에 의한 기독교 배척운동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열강에 의한 침략에 반대하여 1900년, 청국에서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때 열강은 공동으로 병을 출병시켜 운동을 막으려고 했습니다만, 만주를 점령한 러시아군만은 그대로 만주에 진주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만주 점령을 그만 두게 하려고 한 것이 러일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1897년부터 대한제국으로 국명을 바꾸었습니다)과 만주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은 러일전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국내에서는 영국과 동맹하여 러시아의 만주·한국 진출에 대항하던지, 또는 러시아와 직접 동맹을 맺어 이해의 조정을 꾀하던지, 라고 하는 두 개의 대응책이 강구되었습니다. 영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한 것은, 가쓰라 타로(桂太郎) 수상과 고무라 슈타로(小村壽太郎) 외상이며, 러시아와 동맹을 맺으려고 한 것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들이었습니다. 1902년 1월에는 러시아에 대항할 것을 목적으로 영일동맹이 체결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만주로부터의 철수를 약속했습니다만 실행되지 않고, 1903년에는 꺼꾸로 한국과의 국경에 병을 진출시켜 한국 영내에 군사시설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영일동맹을 방패로 러시아가 만주에서 우위에 서기 위하여,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러시아에게 일정시키려고 러시아와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섭은 잘 진행되지 않았고, 1904년 2월, 일본은 개전을 결정했습니다. 수일후에는 일본 해군이 여순의 러시아 함대를 공격해 눈 깜박할 새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황은 일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있어서 전쟁의 부담은 매우 커서, 병사나 포탄은 점점 소모되어갔습니다. 전비의 지출도 거의 한계에 달해, 전쟁을 계속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평화교섭의 중개를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05년 8월 포츠머스에서 일본측 전권 고무라슈타로 등과 러시아측 전권 윌티 등 사이에서 강화회의(포츠머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섭은 일본군이 점령한 사할린 할양과 배상금 지불을 요구하는 일본측과 이것을 거부하는 러시아측 사이에서 난항했습니다만, 결국 일본측이 배상금의 요구를 취소하고 사할린에 관해서는 러시아측이 남쪽 절반의 할양을 인정하는 것으로 겨우 해결되었습니다.

1905년 9월 5일에는 러일강화조약(포츠머스 조약)이 조인되었습니다만, 이 조약에 의해 일본은,

- ①한국에 대한 우월권
- ②여순·대련 및 그 주변지역의 조차권

③장춘·여순간의 철도 및 그에 부속하는 권익

④남 사할린의 영유권

⑤연해주·감차카 연안에 어업권

등을 획득했습니다.

전쟁은 끝나고 일본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만, 그 희생은 큰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상자와 거액의 차관을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러일전쟁의 주된 전장은 일본도 러시아도 아닌 청국과 한국의 국토이었음은 틀림없는 사실로, 이들 지역에도 많은 희생자를 낳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전쟁중에서 전후에 걸쳐 한국과 세 번 정도 한일 협약을 체결하여, 외교·내정의 실권을 잡아, 의병운동 등의 한국내의 격심한 한일 민족운동을 억제했습니다. 일본에 의한 지배를 참다 못해 1907년에는 「헤이그 밀사사권」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1907년 6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것을 알게 된 고종(조선국왕)이 국제회의에서 조선이 일본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고통을 호소하려고 평화회의에 참가하려고 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외교권」을 잃은 상태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통한 생각을 세계로 호소할 수 없어, 조선국왕은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그후, 일본정부는 이 밀사의 파견을 불법행위로 보고, 국왕을 퇴위시켜 그 위에 제3차 한일협약을 강요했습니다.

1909년 10월에 일어난 안중근⁴⁾에 의한 이토 히로부미⁵⁾ 암살사건을 계기로, 일본군은 한국에 대해 한층 더 압력을 넣어, 1910년 8월, 드디어 한국을 병합해 버렸습니다.

※4. 안중근(1879-1910) :

조선의 독립운동가. 1894년의 갑오농민운동 때에는 정부측 의병을 일으켜 농민을 격파했다. 1909년 한국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을 방문한다는 것을 알고, 살해를 계획,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를 권총으로 암살했다. 다음해 3월 여순 감옥에서 처형되었으나, 조선에서는 의사로서 칭송받아, 그 행동은 오래 조선의 독립운동을 분발시켰다.

※5. 이토 히로부미(1841-1909) :

메이지 정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일본에서는 영웅으로서 알려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침략자, 식민지주의자로서 알려져 있다.

한일교류의 역사

(근·현대편)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와 그에 대한 저항~

*국권 침탈

1910년 8월 22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에 의해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그때까지의 독립국 「대한제국」이 아닌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한성」을 「경성」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때까지의 한국통감부⁶⁾를 대신하여 조선총독부⁷⁾가 설치되고, 육군대장인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가 초대 조선총독에 취임했습니다. 조선총독은 천황에게 직속되고, 일본의 육해군의 대장들 중에서 임명되고, 조선의 입법·사법·행정·군사에 관한 권한을 잡고 있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처음에는 서울 남산 중턱에 세워진 구 한국통감부를 이용했습니다만, 일이 많아져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어, 하필이면 경복궁(조선왕궁의 하나) 경내 중, 그것도 정문인 광화문의 식전을 실시하는 장소 사이에 끼어드는 위치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의 많은 건물은 해체되거나 창고로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어온 조선총독부의 건물을 철거할 것을 결정하여, 현재는 경복궁 전체의 복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 사진

*식민지 지배

한국통감부가 조선총독부가 되고나서 일본은 한국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관리가 같은 식민지이었던 대만보다 엄격했던 것은, 의병들의 반일투쟁이 끈질기고 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응징한 관리를 한 끝에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자유」를 차례차례로 빼앗았습니다. 한국어로 된

※6. 한국통감부 :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에 의하여 보호국이 된 대한제국에 대하여, 일본이 그 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만든 기관.

※7. 조선총독부 :

일제시대(1910-1945)에 일본이 조선에 설치한 식민지 통치기관. 1910년 8월의 한일합방을 계기로 한국통감부와 한국정부의 여러 기관을 통합하여, 완전한 식민지 지배에 적합하게 바뀌었다.

신문은 하나를 남겨두고 전부 발행 금지가 되었고, 「조선교육령」에 의해 한국어나 한문 수업까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문화의 근본인 「말」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이것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더라도 일본인 선생은 허리에 칼을 차 학생을 위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시련이 있었고,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토지대장이 만들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빼앗겼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를 조사하는 구실로 실제로 토지를 잇달아 빼앗겼습니다. 또한 「회사령」이 내려지자 조선에서의 회사설립은 총독의 허가제가 되어 버려, 한국인에 의한 회사의 설립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년후에는 한국의 회사의 자본금, 팔할 이상과 한국에 있는 광산 채굴권의 팔할을 일본인이 점령하게 되어, 특히 전기·철도등의 사업은 조선총독부나 일본의 대기업이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본은 한반도에서 나쁜 짓도 했지만 철도를 부설하거나 광산을 개발하는 등 좋은 일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누구를 위하여 그런 사업을 실시했는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좋은 일이었던가 나쁜 일이었던가 대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은 소작농이 되던가 「내지」라고 불렀던 일본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제적으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좋아서 온 사람은 과연 있었을까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롭고 힘든 시대이었습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한국은 외적으로부터 침공을 받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족문화를 유연하게 지켜온 자랑스러운 민족이 살고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번이나 침공을 받았습디만, 한국측의 저항은 끈기있는 것이었습니다

*3.1 독립운동

1919년 1월 조선왕조 최후의 국왕·고종이 죽었습니다. 그의 돌연한 죽음에, 일본에 의한 독살이 아닌가 하는 소문도 나 돌았습니다. 3월 1일은 장례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오후 2시, 민족대표 33명에 의하여 독립선언이 선포되었습니다. 독립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조선국이 독립국인 것과, 조선인의 자주민인 것을 선언한다. 이것을 세계만국에 알리고 인류 평등의 대의를 분명하게 하여, 자손만대에게 알리고 만족자촌의 정당한 권리를 영구히 향유하게 하려고...」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⁸⁾를 휘

※8 태극기 :

1883년 1월 국기로서 공포된 것.

1948년의 건국후, 바로 국기로서의 계승이 결정되어 자세한 양식도 정해졌다.

중앙의 원은 태극, 그 안의 상하에 있는 적색·청색의 소용돌이 무늬는 양·음을, 사방

두르면서 데모 행진을 했습니다. 이 운동은 「삼·일독립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2월부터 조금씩 사전준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삼·일독립운동은 전국에 눈 깜박할 새에 퍼져갔습니다.

이러한 정당하고 평화적인 운동도 당시의 일본에 있어서는 충격적인 일로, 이것에 대하여 잔학한 무력탄압을 실시했습니다. 3월 1일의 서울 행진에 참가했던 이화학당의 여학생 유관순은 고향인 충청도 천안에 돌아가 독립운동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독립만세를 외쳤는데, 일본의 헌병에게 체포되어 버렸습니다. 감옥 속에서는 고문을 계속 받아 1920년 10월 12일, 17살의 나이로 생애를 마칩니다. 그녀의 용기있는 행동은 유럽에서 그녀와 같이 나라를 구하여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는 잔 다르크와 비교되어 「한국의 잔 다르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천안에는 1987년 8월 15일에 독립기념관(사진5)이 문을 열었습니다.

*관동대지진

당시 한국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일본인은 적었고, 반대로 1923년에 일어난 관동대지진 때는 「조선인이 방화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 돌아, 6천명 이상의 조선인이 학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경찰이나 군대가 한국 사람들의 독립운동에 두려움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립운동

삼·일운동은 몇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선 조선총독부의 통치가 이전보다 덜 엄격해졌습니다. 그것은 경찰에서 헌병을 빼고 보통 경찰로 한 것이나, 학교교원이 칼을 차지 않게 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절정에 달한 1919년 3월부터 4개월간에 나라 내외에서 일제 타도와 민주공화국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5개의 임시정부⁹⁾가 세워졌습니다. 소련의 블라디보스톡에서는 대한국민의회가, 철산·의주 지역에서는 신한민국정부가, 그리고 서울에서는 13도 대표의 국민대회 명의로 한성정부가 각각 수립되었습니다. 1919년 9월 11일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새로 수립되어, 이에 따라 임시헌법과 내각명단이 공포되어, 민주공화제에 의한 정부라고 칭했습니다. 이 활동의 중심이었던 김구와 임시정부에 끼어 활발히 독립운동을 실시한 윤봉길 등은, 현재도 한국에서 칭송되고 있습니다.

의 검은 궤는 왼쪽 위·오른쪽 아래·왼쪽 아래·오른쪽 위의 순서로 乾·坤·離·坎이며, 天·地·日·月을 나타내며, 만물생성의 발전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9. 임시정부 :

독립운동의 계속과 확대를 위하여, 그리고 민족이 통일하기 위한 지도기구가 필요하다고 하여 만들어진 조직.

한일교류의 역사
(근·현대편)
~황민화 정책과 광복~

1931년 9월 18일, 일본군은 요동반도와 한반도로부터 조직적인 중국침략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9년후에는 중국을 건너 베트남을 공격했습니다. 일본의 영토보다 더 넓은 지역에 수백만 명의 일본병사가 출병했기 때문에, 무기와 탄약 그리고 식량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해결 때문에 한반도는 기지의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1936년 독일 베를린에서 실시된 마라톤 경기에서 손기정이 일본인 선수로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만, 한국의 신문사인·동아일보는 그의 가슴에 있던 히노마루(일장기)를 검게 칠하여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한국사람들의 반일정신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한층 더 압력을 가해 갔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마다 하나씩의 신사를 만들게 하고, 일본식으로 신사에 참배하게 하고, 매일 아침 동경의 황궁 방향으로 절을 하는 일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인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성을 폐지하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씨개명」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강제되어 팔할 이상의 사람들이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때도 이 제도에 반대하여 자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항의의 뜻이 포함된 자살이었습니다. 조상에서 이어받은 성을 바꾸는 일은 그만큼의 뜻을 가진 일이었습니다.

태평양전쟁 때, 일본은 한국사람도 징병하고, 또한 국내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인을 강제로 일본에 연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끌려온 사람들은 일본 각지의 광산, 공장에서 중노동을 강요당했습니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못 이기고 죽은 한국사람은 약 6만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군도·히로시마(広島)나 조선소가 있던 나가사키(長崎)에 끌려간 사람들은 피폭당해, 사망하거나 후유증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피해는 늘어만 갔습니다. 일본인이라고 교육받고, 「일본병」으로서 충실하게 근무한 끝에 전후의 재판에서는 전범이 되어 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희생당한 것은 노동력이 있던 남성뿐만 아니었습니다. 한국 각지에서 강제연행되거나 속여서 모인 젊은 여성들이 중국에 보내져 각지의 「위안소」에서 비참한 나날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몇십명의 병사를 상대로 세월을 보냈던 일은 후에 어디에서도 털어놓을 수 없는 슬픔 그 자체이었으며, 1990년대가 되고나서 겨우 공표하는 사람이 나타나, 한일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많은 상처를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에 남기고, 일본은 전쟁에 지고 말았습니다. 조선에 있어서는 36년에 이르는 긴 일본의 식민지배가 드디어 끝난 것이었습니다.

참고문헌

1. 韓国併合 海野福寿 岩波新書 1995
2. 入門韓国の歴史 石渡延男監訳 明石書店 1998
3. 朝鮮の近代 鎌谷憲一 山川出版社 1996
4. 日清戦争と朝鮮 朴宗根 青木書店 1982
5. 日本近代史 I 遠山茂ほか 岩波書店 1975
6. 古代日朝関係史入門 金達寿 ちくまぶっくす 1980
7. 日露戦争 古屋哲夫 中公新書 1966
8. 朝鮮 金達寿 岩波新書 1958
9. 図説-韓国の歴史 金両基監修 河出書房新社 1988
10. 朝鮮の歴史 池明観 明石書店 1998
11. 韓国民主化への道 池明観 岩波新書 1995
12. 目で見る5000年-韓国の歴史 アンドリュウ.C.ナム 三修社 1988
13. 韓国の歴史 宋連玉ほか 明石書店 1997
14. 新しい韓国近現代史 鄭在貞 桐書房 1993
15. 明治六年政変 毛利敏彦 中公新書 1979
16. 伊藤博文と安重根 佐木隆三 文芸春秋 1992
17. 日韓併合 森山茂徳 吉川弘文館 1992
18. 創始改名の研究 金英達 未来社 1997